삼성중공업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설계직

- 자기소개

[근면(勤勉)과 성실(誠實)의 차이]

어떤 일이든 기본에 충실하고 밑바탕이 돼야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 소양이면서 저의 가장 큰 무기는 성실함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는 근면에 그치지 것이 아니라 근면을 바탕으로 참된 열매를 맺는 성실(誠實)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군 제대 이후에는 집의 도움 없이 등록금,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였습니다.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여 매학기 빠짐없이 장학금을 받아왔고 그 덕에 3년 동안 부모님께 용돈 한번 받지 않고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 끝에 선박설계 컨테스트에서 수상하였듯, 하프마라톤에서 꾸준히 달려 결국 완주를 하였듯이 저는 진득한 노력 끝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장점

[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

제가 맡은 일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 이상 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임해왔고, 주변에서 책임감이 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학과 학생회 총무직을 추천받아 2천만 원 상당의 학생회 예산을 관리하여 문제없이 다음 학생회에 인계하였고, 학과 활동준비 등 맡은 바 임무에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 보안점

[열매를 맺기 위한 적극적 자세]

어렸을 적 다소 내성적 성격을 지녔지만 학창시절 많은 친구를 사귀면서 적극적이며 활발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르바이트하면서 리더쉽과 추진력을 키웠고 누구와도 금방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력 있게 몸소 실천하며 실수하고 후회하기보다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동기 및 포부

[세계 초인류기업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일에 익숙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부심을 품고 임하는 사람보다 능률은 물론 작업 분위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학회 주최의 선박설계 컨테스트에 기본설계에 참여하여 구조설계 파트를 맡아 Scantling 계산 및 유한요소법에 따른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Midship 설계도를 작도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직접 선박을 설계했다는 데에 느낀 큰 즐거움과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구조설계 일은 즐겁고 보람된 일이기에 누구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해낼 수 있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6위를 차지할 만큼 그 위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기록을 수없이 세웠던 초일류기업 삼성중공업이란 이름으로 정말 자부심을 품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에 반드시 입사하고 싶습니다. 세계 초일류를 항해하는 삼성중공업이라는 배에 태워주실 기회를 저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